



■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KEI 분석결과 공개

“제2공항 입지 부적정성 재확인”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이 대안검토 필요 의견 제시”

“국토부는 고시 중단해야”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부적정해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이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 기본계획(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공개했다.

KEI는 검토의견에서 “제2공항 사업지구는 인근에 철새도래지가 있고 과수원, 양돈장 등이 입지한 지역”이라며 “국내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또 KEI는 평가서 초안이 나왔을 때 이미 지적한 내용들이 본안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KEI는 “법정보호종 서식지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해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철새도래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합성을 확보하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가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KEI는 항공기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EI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기 소음 피해와 민원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고려해 기존 대안과 추가 대안에 대한 비교와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6개의 기존 대안 뿐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2공항 계획부지 내 동굴(동굴) 분포 가능성을 확인할 추가 시추조사와 전기비저항탐사 실시가 필요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경관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KEI의 검토의견에 대해 “제2공항 계획 및 입지의 부적정성이 재확인됐다”며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토부는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 공론화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마을회는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은 양돈약취 근절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희만기자

“도정은 양돈약취 근절대책 마련하라”

표선면 세화리 기자회견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주민들이 제주도에 실효성 있는 양돈약취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화리 마을회는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은 도민들이 구역질 나는 양돈약취 고통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세화리 주민들은

마을 인근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약취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견디고 있다”며 “또 지난 19일 인근 과수원으로 분뇨가 넘쳐 유출되는 사태를 인본을 통해 지켜본 우리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제주도정이 ‘약취관리지역지정기준’을 완화해서 양돈사업자에게 약취관리지역 지정

권한 필연적 결과물”이라며 “실효성 있는 양돈약취근절대책 마련을 제주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화리 주민 411명의 서명이 담긴 ‘양돈약취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민청원서’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에 전달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양돈약취 문제는 오늘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현장을 자주 둘러보고 근본적인 약취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

경찰,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남쪽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된 A(3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남쪽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

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지난 8월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은 23일 만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김현석기자

세금으로 자택 진입로 공사 공무원 2명 항소심도 ‘무죄’

지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지은 뒤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폭 3m의 자택 진입로 350m 구간을 5m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발

주·시행해 서귀포시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민기자



성음119센터 개소

제주도 동부소방서는 30일 성음119지역센터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및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성음119지역센터는 화재취약지역 소방안전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3월 착공해 이날 완공됐다.

지상 2층 연면적 556.64㎡ 규모에 사무실, 심신안정실, 체력단련실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을 갖춰 도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석기자

ASF와 사투중인데... 유통업계 무감각

<아프리카 돼지열병>

도, 최근 2주간 축산가공품 불법반입 12개업체 적발 업체 “반입금지 조치 몰랐다”... 행정시, 경고 처분

전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을 막으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제주지역에서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불법 반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 사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돼지고기를 제주지역에 들여오려던 업체 12곳을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7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과 정육, 내장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70℃ 이상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한 축산물 가공품은 반입을 허용했다. 이번 적발된 축산물은 450kg 상당으로 모두 제주항을 통해 들어왔다. 동물위생시험소 측은 가열 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돈까스가 대다수였으며, 양념육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식당, 마트, 물류센터 등으로 9곳이 제주시, 나머지 3곳은 서귀포시에 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위생시험소 측은 적발된 축산물을 모두 반송 또는 폐기처분했다. 조례에 따라 축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체에게는 어긴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 50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으면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번엔 적발된 업체를 모두 경고하는 것으로 행정 처분을 마무리했다.

양 행정시 관계자는 “모든 업체가 타시도산 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줄 모르고 축산물을 들여왔다고 진술했다”면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이번엔 한해 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몰라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업체들한테는 방역 조치가 변경될 때마다 해당 사실을 문자로 보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에서는 1일 돼지 3500마리가 도축되는데, 70%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된다. 다른지역에서 반입되는 물량은 1일 21마리 정도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뿌리혹병의 경감
- 강력한 라이모효과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높은 저장성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향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앵배추 브로컬리 무우 앵파 배추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 브로컬리 앵파 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